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상업정보계열 중심으로-

A Study on Curriculum for department of accounting of
commercial high school in Jeju

오 성 렬*
(Sung-ryeol Oh)

목 차

- I. 서 론
- II. 회계교육현황
- III.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회계관련 교육과정
- IV. 결 론

I. 서 론

상업계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다기능, 다기술의 전문직업인 양성요구와 고학력 우대주의의 사회적 풍토에 따른 상급교육기관으로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취업중심의 종국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진학 모두를 중시하는 계속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상업계고등학교의 성격을 기존의 종국교육기관이 아닌 기초직업교육 수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상업계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

* 제주국제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다. 우선 교육의 내적인 문제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부족,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부족, 흥미와 요구의 상실, 외적인 문제로는 고학력 중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업계고등학교의 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12개교의 특성화고에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6개교는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처럼 취업을 염두에 두어 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을 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현황에서 제주지역에서 상업계고등학교는 점점 축소되고 있어 상업계열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상관계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 상업계고등학생들은 회계 관련 과목에 느끼는 복잡함,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 시 동일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회계 관련 과목에 관심을 갖고 대학 진학 시 관련계열로 진학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타 지역과 달리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뚜렷한 바, 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와 회계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상업교육의 활성화 및 좀 더 많은 상업계고등학생들이 회계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Ⅱ. 회계교육의 현황

2.1. 상업교육의 교육과정

2.1.1. 상업계고등학교의 현황

상업계고등학교의 상업교육의 목표는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여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상업계고등학교는 성적이 부진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희망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상업계고등학교 진학 기피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진학 후에도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부족하고 낮은 학습능력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신감의 상실로 인해 무력감에 빠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6개의 상업계고등학교가 있으나 학교명칭도 일반고등학교로 개명하고 대부분 진학반을 두어 일반고처럼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2.1.2. 상업계고등학교의 변천

우리나라 상업계고등학교의 변천은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수요목기이다 (1946년 11월~1955년 8월). 미군정시대에 이르러 사업교육의 목표를 직업교육적 성격에서 다루었다.

둘째, 제1차 교육과정이다(1955년 8월~1963년 2월). 상급학교 진학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선형 학제의 기본취지를 교육과정에 최대한영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이다(1963년 2월~1974년 12월). 상업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제2차 교육과정의 원칙이 그래도 반영되어, ①상업, 경영관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②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상업의 기능과 상업에 있어서의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실업인으로서의 신념과 자각을 갖게 한다. ③ 일반경제생활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실기기능의 교육은 주로 부기, 주산, 타자교육에 집중되었다.

넷째 제3차 교육과정(1974년 12월~1981년 12월)이다. 교육목표는 ① 상업, 경영관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② 생활에 있어서 상업의 기능과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직업인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③ 경제활동에 있어서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고 일상의 경제생활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다섯째, 제4차 교육과정(1981년 12월~1988년 3월)이다. 상업고등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학과를 3개의 전문학과로 분리하였다. 종래 상업과 하나로만 운영되던 상업계고등학교는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4분과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제5차 교육과정(1988년 3월~1992년 10월)이다. 상업교육과목은 상업과 경영, 부기, 컴퓨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개인적인 면은 상업계 관련된 직업세계를 이해하게 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상업교육 목적을 직업탐색과 경험의 제공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곱 번째, 제6차 교육과정(1992년 10월~1998년 6월)이다. 1993년을 기준으로 주산, 부기, 타자 등 전통적인 기능종목에 대한 수검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새로 기능검정 분야로 설치된 워드프로세서 분야 수검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제 5차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산업사회의 변화와 학문적 발전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덟째, 제7차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되었으며 2002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다. 상업계고등학교는 모든 학과에서 전문교과의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아홉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7차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의 전문교과에는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2.2. 2009개정 상업정보에 관한 교과 교육과정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라틴어인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의 경주로와 같이 이미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어 다른 길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 즉 이수해야 할 학교 교과과정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개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용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묶은 교육의 전체 계획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2.1. 개정배경

최근 직업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체제개선, 취업능력 및 취업률 향상, 일과교육, 자격의 연계 강화 등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육과 노동시간의 파트너쉽 구축, 산학 일치형 교육과정의 개발,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고등교육기관 및 자격제도 등과의 연계성,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행, 재정적 지원개선 등의 문제해결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선진화 추진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구현할수 있도록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육과정개정방향에 적합한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2.2.2. 주요 개정내용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 목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표에 바탕을 두고 기준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준학과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 평생학습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먼저, 상업정보계열기준학과의 편제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2007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2개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1개 학과의 성격 및 목표를 변경하여 재설정하였으며 1개학과를 신설하였다. 대체로 편제 학과의 명칭은 학생들이 진출하거나 관련분야로 진학할 경우 학습의 기본을 중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학과명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의 편제 개편내용

2007 개정교육과정	2009개정내용	비고
경영정보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무역정보과	
정보처리과	정보처리과	
응용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학과의 명칭, 성격, 목표변경
관광경영과	관경경영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명칭변경
전자상거래과	전자상거래과	
멀티미디어과	콘텐츠개발과	명칭변경
	금융정보과	신설

2.2.3. 상업정보계열 전문 교과목의 편제

상업정보계열의 전문교과목은 전체적으로 계열필수과목, 공통선택과목,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 회계정보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계열에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여 졸업이후에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신설,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회계정보과의 경우 기업회계를 재무회계로 명칭을 변경했고, 관리회계과목을 신설했다. 관리회계는 회계원리 교과목과 원가회계를 학습한 후에 선택되는 심화 과목이다. 또한 전산회계를 회계정보처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업정보계열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의 편제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계열필수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상업경제 회계원리
전문교과	기업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전산회계 기업자원관리 금융생활	재무회계(과목변경) 관리회계(신설)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계정보처리시스템(명칭변경) 기업업무통합관리(명칭변경)

Ⅲ.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회계관련교육과정 분석

3.1.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및 상업정보계열 교육과정분석

제주도내의 경우 12개교의 특성화고가 있으며 이 중에서 6개교가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제주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진학선호로 인해 대부분 고등학교들의 명칭이 “상업고등학교” 대신에 “고등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만이 유일하게 학교명에 “상업고등학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선도 특성화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위에서 살펴 본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에서 회계관련 비중이 있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교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금융과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상업경제 전산회계	세무회계
함덕고등학교	인터넷비즈니스과	컴퓨터일반	회계원리	전산회계 세무회계
	정보처리과			
제주중앙고등학교	금융비즈니스과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원가회계 전산회계	

(2012학년도 신입생 기준 교육과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회계원리와 전

산회계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상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중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상업계열 공통필수과목으로서 학과에 구분없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도 회계원리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계원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혹은 2학년때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회계관련교과목중 공통적으로 편성된 과목으로는 전산회계를 볼 수 있다. 전산회계는 2학년과 3학년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3.2. 상업정보계열 회계관련학과의 교육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주도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일반계고교의 전환으로 존재기로 서있고 그 대안으로써 특성화고교로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산업체수가 적어 취업문이 좁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고교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회계 관련 학과도 위의 <표 4>에서 살펴보았듯이 12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3개 고등학교에서만 보이고 있다. 이렇듯 상업관련학과의 공동화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업정보계열기준학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3.2.1. 선취업·후진학의 상업정보계열 교육목표

제7차 개정교육과정 상업정보계열교육성격에 완성교육과 계속교육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는데 2009년 개정교육과정상에는 시대적 환경 및 직업교육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강조되는 산학협력 기반 취업기능 강화 및 졸업 후 선취업·후진학 경로유도등을 보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2010년 기준 10.7%에 불과한 반면 대학진학률은 79.2%이다. 이는 전국 취업률 평균 46.6%에 훨씬 낮다. 이런 현상은 제주지역의 경우 타지역보다 인문계고교로의 진학이 원하고 있고 이는 곧 대학진학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야간대학의 축소로 선취업·후진학의 어

려움이 있고, 지역의 특성상 기업체가 영세하고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업정보계열의 본 취지는 선취업·후진학이지만 이는 제주도내 특성화고교의 특성과 지역특성 때문에 상당한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오픈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업정보계열 목표는 선취업·후진학이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3.2.2. 회계관련 과목의 부족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회계관련 과목으로는 회계원리와 전산회계, 세무회계 과목을 두고 있다. 단지 이 세과목만으로 회계학을 이해하기에는 과목수도 시간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들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회계관련 과목을 접해본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상업계고등학교로의 진학도 자신의 적성과 관심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계관련 과목수의 부족은 이들 학생들에게 회계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며 아울러 진학 시에도 관련학과로의 진학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련 과목수를 좀 더 많이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회계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계정보처리시스템, 기업업무통합관리 과목 등을 신설하거나 명칭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이런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공동화되고 있는 상업계열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3.2.3. 전산회계 관련문제

전산회계는 회계업무를 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루는 회계의 분야로서, 전산회계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의 완전한 습득과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계원리 과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전산회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회계전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환경변화는 과거 취업에 중점을 두던 학교경영의 목표가 취업과 진학에 모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상업계고등학교는 기초적인 원리와 기술의 습득을 전문대학은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목표로 하여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제체로의 교육과정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전산회계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관한 문제점이다. 현재 상업계고등학교에서 전산회계수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CAIM와 (주)더존컨설팅에서 나온 더존소프트웨어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1개 고등학교에서 더존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CAIM를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적인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이 권장된다. 그리고 전산회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의 연수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다른 과목보다도 회계 및 세무분야는 기준 및 법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 및 법규의 습득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를 전산회계프로그램에 반영된 내용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전산회계자격증취득에 관련된 문제이다. 기업환경이 전산화를 통한 회계정보 처리의 자동화를 실현하면서 회계지식의 측정수단이며 검증의 척도역할을 하는 회계검정자격제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 상공회의소 주관의 부기자격 검정제도가 2001년 폐지되었고, 대신 상공회의소 및 민간단체 중심의 각종 전산회계관련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관련 민간자격증으로는 한국세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있고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00년부터 “전산회계운용사”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대부분 전산회계과목이 있다. 수업 중에는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취득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상태이다. 자격증 취득 시 수행평가가산점이 있을 뿐 장학혜택이나 그 밖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이런 자격증 취득학생들이 관련계열로 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에도 진학에 어떤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자격증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회계 및 전산회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울러 회계 관련 자격증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취득에 대한 수행평가상의 혜택이외의 다른 혜택을 부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이들 전산회계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가산점부여를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관련학과로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학생들이 입학했을 경우에는 전문대학내에 개설되어 있는 전산회계관련 과목의 학점인정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 대부분이 진학을 고려하는데 2년제나 4년제 대학에서 전산회계자격증취득에 가산점이나 입학 후에 학점인정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아울러 고등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IV. 결 론

오늘날 사회는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업교육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업계 교육의 위기는 사회변화에 맞게 교육방식이 제대로 변하지 못한 측면,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보다는 중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의 입학,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이에 부응해 점차적으로 잘못된 편견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학벌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상업교육은 인문교육의 편중의 정책에서 위축되어 왔고 대다수 상업계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의 유치는 고사하고 학생정원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즉 90년대 들어오면서 상업고등학교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대학 진학율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문계고 선호현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업계고등학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계고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적성이나 관심과는 관계없이 성적 미달 때문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듯 회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들은 상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더욱더 회계 및 관련과목에 어려움과 복잡함을 느껴 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분야의 전공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공동화가 심해지는 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중 상업정보계열 회계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결국,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개발과 체계적인 회계교육을 위해서는 2009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에 있는 회계관련 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1997), 상업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김대현, “전산회계교육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고찰”, 대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년 12월.

김부경, 차덕환, “고등학교 전산회계실무 교육의 활성화 방안”, 회계연구 제 11권 1호, 대한회계학회, 2006년 4월.

노미현, “개인 및 상황적 특성이 전산회계 교육성파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년 6월.

손은숙, “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교과과정의 연계성”,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유지혜, “상업계고등학교 회계원리교과서 분석과 개선방안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년.

이선표, 윤종원, “대학의 전산회계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 10권 제 1호.

최승은, “실업계고등학교 전산회계 교육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6월.

최지아, “전문대학 회계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11월.

국문개요

상업계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다기능, 다기술의 전문직업인 양성요구와 고학력 우대주의의 사회적 풍토에 따른 상급교육기관으로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취업중심의 중국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진학 모두를 중시하는 계속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상업계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교육의 내적인 문제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부족,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부족, 흥미와 요구의 상실, 외적인 문제로는 고학력 중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업계고등학교의 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타지역과 달리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뚜렷한 바, 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기준학과의 회계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상업교육의 활성화 및 좀 더 많은 상업계고등학생들이 회계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